

헤밍웨이 생가와 박물관(Ernest Hemingway's Birth House)

1899년에 태어난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이하 Ernest) 생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rnest는 20세기 미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 중 한 사람이며,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미국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생애 중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모두 수상하였다.

이 집은 1890년에 그의 외조부모인 Ernest and Caroline Hall을 위해 지어졌다. 건축양식으로는 작은 탑 모양의 지붕, 둑근 베란다, 높은 천정, 큰 창문 등이 특징인 빅토리아 앤 왕조(Queen Ann Victorian) 풍이다. 현재 이 집은 Ernest가 살았을 때와 똑같은 장식과 가구가 갖추어진 원래의 집 모양을 복원한 것이다. 출입구에 서 있는 거울 등 몇 개의 집안비품들은 이 가족의 진짜 소유물이었고 다른 가구들 역시 그 시대의 물건들이다. Dr. Hemingway가 (부친) 찍었던 사진을 보면 벽지, 커튼, 카펫이 그 당시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후 Ernest의 누나인 Marcelline이 회상하기를 카펫의 붉은 색과 분홍색은 그 가족이 좋아했던 장미에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899년 Oak Park은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인구 만 명의 작은 마을이었다. 이 집 앞에 있는 Oak Park가는 비포장이었고, 바로 북쪽에 있는 Chicago가는 여러 나무와 초원의 풀들이 있는 농장과의 경계이기도 했다. Dr. Hemingway와 그의 아이들은 산책을 하거나, 말이나 마차를 타고 1.5마일 떨어져 있는 Des Plains 강가로 가서 낚시나 사냥을 했다. 그때는 새 시대가 시작되던 시기였다. Ernest가 태어나던 해에 Oak Park에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다.

Ernest는 빅토리아 스타일의 집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사고방식도 빅토리아 시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 속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 3분의 1을 보낸 Oak Park에서의 이야기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 그것도 미국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교통, 통신 분야의 발전과 함께 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첫 번째 자동차가 들어온 이래, 기름과 -그 때 막 들어오기 시작한- 전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머리 위 전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 곳이 Oak Park에서 전기가 최초로 들어왔던 집이다. 자동차, 전기, 전화, 라디오, 영화 비행기 등을 통해 Ernest는 그의 부모들이 몰랐던 완전히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다.

Ernest 의 친가 쪽 조부모는 길 건너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 집이 남아있지 않다. Ernest 의 아버지인 Clarence Edmonds Hemingway 는(Dr. Ed 로 알려짐) Oak Park River Forest 고등학교에 다닐 때 젊은 Grace Hall 을 알게 되었다. 졸업 후 Ed 는 오하이오에 있는 Oberlin College 에서 의학공부를 시작한 후, 시카고의 Rush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의료실습 기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Grace 와 Ed 는 Grace 의 친정어머니인 Caroline Hall 이 암으로 병석에 누운 후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Ed 는 Grace 의 어머니가 죽기까지 거의 매일 그녀를 방문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늘 함께 하였고, 마침내 Ed 가 Grace 에게 청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녀는 결혼 청혼을 받아들였으나, 먼저 전문적인 가수로서 직업여성이 되고자 했다.

어머니의 죽음 후에 Grace 는 음악교육을 받기 위해 뉴욕으로 갔고, Madison Square Garden 에서 최초의 음악회를 가졌다. 그때 그녀의 눈이 무대의 밝은 불빛을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장애가 어린 시절 성홍열과 함께 발작을 일으키며 잠시 시력을 잃기도 했는데, 그것이 원인일 것으로 믿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후에, Oak Park 으로 돌아와서 Dr. Hemingway 와 결혼했다. Dr. Hemingway 는 쳐갓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의 6 명의 아이들 중 4 명이 이 집에서 태어났다.

복도에 있는 가족 초상화는 그들이 여기에 살던 모습을 보여준다. Ernest 의 외조부 초상화가 그 밑에 있다. 그는 1905 년에 죽었고, 가족들은 도서관 옆에 있는 집으로 잠시 이사를 했으며, 여기에서 Ernest 와 누나인 Marcelline 은 독서팡이 되었다. 그런 후에 Kinilworth 600 번지 새집으로 다시 이사를 했다. 초상화에서 오른쪽 Ernest 와 왼쪽 누나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

예술(Art)

이 방 앞에 있는 두 개의 사진 같은 풍경그림을 보라. 원작은 Caloline Hall 의 작품인데, 어린 Ernest 는 이 예술가의 눈에 나타난 자연세계를 좋아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유리 안의 새들”과 같은 박제술을 통해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의 어머니인 Grace 는 Chicago Art Institute 의 가족회원 이었고, 아이들을 거기에 자주 데리고 갔다. Ernest 가 청년시절 파리에 갔을 때, 그는 이미 현대회화 스타일에

친숙해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피카소, 마티스, 모네의 작품과도 친해지게 되었다. 그는 새로 사귄 친구이자, 권투동료이기도 한 스페인 화가 Joan Miro 에게서 돈을 빌려 중요한 그림을 사기도 했다.

몇 년 후 Liltan Ross 와 함께 뉴욕에 있는 Metropolitan Museum of Art 를 여행 하던 중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Paul Cezanne 처럼 풍경을 그릴 수 있다. 나는 세잔과 함께 룩셈부르크 박물관을 수천 번 걸으면서 어떻게 풍경화를 그리는 가를 배웠고, 만약 그가 옆에 있다면 내가 그린 풍경화를 보고 좋아하리라고 확신한다.”

음악(Music)

Grace 는 자식 모두 음악을 공부하길 원했다. 그녀는 이 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물론 그녀는 아이들에게 노래도 가르쳤다. Ernest 는 오페라와 클래식음악은 물론, 대중음악이나 종교음악과 같은 음악도 접했다. 그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반에서 첼로를 연주했고, 엄마의 지휘에 따라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Ernest 가 특별한 음악재능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작곡과 글 쓰는 일의 상호관계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곡가에게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하모니와 대위법을 공부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나는 바하가 악보를 쓸 때 대위법(counterpoint)을 사용했던 방식처럼 ‘Farewell’의 첫 문단에서 ‘그리고’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다.”

실제로 Ernest 의 초기 몇 개의 작품에서 그의 음악적 테크닉을 엿볼 수 있다. 파리에 있는 그의 친구 Gertrude Stein 은 Ernest 의 이러한 재능을 칭찬하며, ‘진짜 장미인 것이 장미이다’라는 구절을 암송하기도 하였다.

종교(Religion)

Hemingway 가와 Hall 가는 모두 독실한 신교도 집안이었다. 그의 조부는 ‘시카고 청년 기독협회(Chicago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공동 설립자이자, 회장이었다. 또한 그의 외조부는 그의 가족을 매일 종교적인 독서와 기도로 이끌었다. Ernest 는 소년시절 그의 외조부가 직접 신에게 말하는 것을 이방에서 지켜보기도 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세계 제 1 차 대전에 참여하는 동안, Ernest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된 Pauline Pfeiffer 의 영향을 받아 Catholic 으로 개종했다. 그러나 그의 전 생애를 통해 가끔씩 종교 불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종교적 전통에 심취하기도 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Ernest 의 종교적인 관점은 그의 어떤 이야기와 편지, 일화 그리고 소설을 읽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예술이나 음악과 마찬가지로, Ernest 의 후기 종교적 신념은, 유년기 가족의 가르침에서라기 보다는 그의 인생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 동안 종교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응접실(Parlor)

먼저 이방에 있는 Dr. Hemingway 가 찍은 사진을 보라. 벽난로 옆에 걸려 있는 Grace Hemingway 의 초상화와 흔들의자, 피아노 그리고 그 중 몇 개는 그 가족이 이 집에서 살 때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들이다.

서재(Library)

서재는 최소한 두 가지의 기능을 했다. 첫째는, Hall 외조부가 딸이나 사위의 방해 없이 저녁식사 후 담배를 피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은신처로의 기능을 했고, 또한 이 서재는 독서광인 이 가족의 평생 지식의 보고였다. Ernest 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일생을 통해 책 읽는 정열이 지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오늘날 쿠바에는 5,000 권이 넘는 그의 책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백에 써 놓은 많은 메모들은 독서에 대한 그의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북쪽 벽에 있는 미국 남북전쟁에 관한 소개서는 그의 초기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왼쪽에 있는 증명서는 Hall 외조부가 북부 연합군(Union Army)에 복무할 때, 남부군(Confederate Forces))에 의해 총상을 입고 체포되기도 했던 경험을 보여준다. Hall 외조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앞에서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Ernest 의 조부는 Vicksburg 요새 전투에 참여했고, 흑인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약 일 년 정도 군대에 더 머물렀으며, 그후에도 군대행사와 전우회에 참여하기를 좋아했다. 결국 Ernest 는 그의 외조부로부터 전쟁이란 논의될 대상이 아닌, 가장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의 조부로부터는 전쟁이 모험과

영웅주의, 자기희생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원천임을 배운 것이다. 어린아이였음에도 그는 전쟁의 양면성을 알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 1 차 세계대전을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2 차 세계대전에서의 그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 있는 멜로디언은 어린 소녀였던 Caloline Hall 이 연주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왼쪽과 중앙에 있는 유화는 Ernest 외증조부모의 그림이고, 오른쪽 것은 증조모의 그림이다. 두 마리의 부엉이는 Dr. Hemingway 가 1896 년 신혼여행에서 잡은 것인데, 이것은 그가 종종 총을 지니고 다녔음을 증명한다.

전화(번호 181)를 통하여 Dr. Hemingway 가 공동 설립자 이기도 한 Oak Park 병원과 그의 환자들과 연락을 하였다.

식당(Dining Room)

Marcelline 에 의하면, 매일 아침 Dr. and Mrs. Hemingway 가 이 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외조부 Hall 과 아이들이 방을 차지하였다. 외조부 Hall(세례명 Abba)은 식사 후 조간신문을 읽은 다음, 그의 손자들에게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동물에 대해 매일마다 시리즈로 이야기하곤 했다.

Ernest 는 할아버지 얘기를 좋아했고, 가끔씩 자신을 영웅들과 동일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할아버지의 모험담 이야기에 등장했던 불 같은 눈을 가진 Carlo(개의 이름)로 불러주기를 원했다. 한편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이 가정의 풍습이었다. Ernest 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 달리는 말에서 아가씨를 구출하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벽난로 위에는 박제된 사슴 머리가 있었다.

주방(Kitchen)

Grace Hemingway 가 좀처럼 주방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전문직여성이 되어서 요리, 청소, 세탁, 아이보기 등의 가사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도록 교육받았다. Dr. Hemingway 가 직접 가져온 물고기나 사냥감으로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Grace 는 영국식 쿠키를 만들었다.

Grace 는 또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참여를 통해 현대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 후 Ernest 는 성숙하고 지적인 직업여성을 신부로 찾기 시작했다. 그의 첫 사랑은 전문직 간호사였던 26 살의 아그네스(Agnes Von Kurowsky)였고,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9 세였다 (무기여 잘 있거라 참조). 그의 첫 번째 부인인 Hadley Richardson 은 그 보다 8 살이 많았고,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다 (A Movable Feast 참조). Pauline Pfeiffer 는 5 살 연상이었고 직업 언론인이었다. Hadley 와 Pauline 는 결혼 당시 지참금을 가져왔고, Martha Gellhorn 과 Mary Welsh 역시 모두 직업 언론인이었다. Ernest 는 이 여성들에게 조금씩은 존경심을 가지고 이끌렸으며, 그 여성들은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

주방의 의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Hemingway 재단에 기증되었고, Ernest 가 어릴 때 있었던 미시간의 가족별장에 비치되었다.

아저씨 방(Uncle Tyley's Room)

Benjamin Tyley Hancock 은 Carolyn Hall 의 동생으로, 유명한 Miller Hall 회사에서 침대 sales 를 위해 출장을 갈 때를 제외하고는 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쾌활했고, Ernest 와 그의 누이들에게 여행담이나, 선장이었던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바다에서 보냈던 소년시절의 경험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Ernest 의 견문을 넓혀주었고, 그가 가져다 주는 특이한 선물은 Ernest 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또한 아이들을 멋진 식당에 데려가기도 하고, violin 이나 flute 을 연주하고, 노래도 하며 그들 가족의 문화를 함께 즐겼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Ernest 와 가족 모두를 게임으로 즐겁게 만들었으며, 함께 낚시도 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하인 한 명과 약혼을 하기도 했다. 그 하인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편지를 보고, 그는 많이 상심하고 육아실 옆에 있는 그의 방에서 흐느꼈다고 Marcelline 은 회상한다. 아저씨의 바다 이야기는 Ernest 가 12 세 때 쓴 첫 작품 ‘바다 항해(A Sea Voyage)’의 기초가 되었다.

하인들 방(Maid's Room)

그 당시 많은 중산층 가정처럼, 요리사와 하인들은 주방, 지하실 또는 본 집의 뒷 계단 옆에 있는 옥외 시설에서 살았다. 여기의 하인들은 가족들의 아침 기도에 함께 참여했고, 주방에서 아이들과 식사를 했다. 그들은 Ernest 의 엄마인 Grace Hall 에게

노래를 배웠고, 그들의 외국어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도 했다. Ernest는 하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기초로, 평범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우정을 표현하였으며, 그들에 대해 동정적인 글을 쓰기도 하였다.

마루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지 않아서, 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한 Dr. Hemingway의 위생관념과, Grace에 의해 작성된 각 방의 가구목록에 주목하라. 아마도 이 가구목록은 보험용도로 작성된 것이며, Dr. Hemingway 부부가 각 방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한다. 주방의 난로에서부터 방으로 연결된 난방장치는 여름보다 쾌적한 겨울이 되게 했다.

욕실(Bathroom)

Samuel Osgood이 1905년 Hemingway 가로부터 이 집을 샀을 때, 당시 7세 소녀였던 한 노파가 이 욕실의 대리석 세면대, 욕조, 변기 등의 위치에 대해서 말했다. 창문 꼭대기를 청소하기 위해,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선반의 문들 중 하나가 한쪽 면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집을 복원할 때 다락방에서 발견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 집 전체에서 사용된 색깔이나 광택제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반짝이는 흑백의 체크모양 타일은 그 당시 유행한 바닥제였다. 면도칼을 갈던 가죽 협대는 Ernest를 포함한 벼룩없는 아이들을 별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욕실은 늘어나는 가족을 위해 좀 더 큰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복도 쪽으로 약간 확장되었다.

육아실(Nursery)

Grace는 처음 두 아이를 쌍둥이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끔씩 똑같은 옷을 입히기도 하고, 머리도 같은 모양으로 잘라주었다. 그녀는 Marcelline을 유치원에 일 년을 더 다니게 하여 동생인 Ernest와 동시에 일 학년에 입학시켰다. 그 당시 다른 부모들도 어린 소년을 여자처럼 옷을 입히기도 했지만, Grace는 당시의 풍습보다 더욱 심했다. Ernest가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을 싫어했다는 주장도 있다.

Ernest와 Marcelline은 여기 2층 침대를 함께 사용했다. 후에 Marcelline은 자기가 아래쪽 침대를 이용했고, Ernest가 위쪽을 사용했다고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그들이 단지 쌍둥이가 아니라 자기가 누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바닥에 있는 장난감 상자는 Marcelline의 것이었다.

어머니의 방(Grace's Bedroom)

이 집 전체에서 가장 정확히 복원된 곳이 바로 이 방이다. 옷장 안에서 발견된 벽지는 원래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당시의 색깔과 무늬를 짐작할 수 있다. Grace 는 주로 이방에서 생활했고, 6 명의 아이들 중 4 명이 이방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Dr. Hemingway 가 직접 아이들을 받았다. Ernest 가 태어났을 때, Dr. Ed 가 현관 앞에서 아들의 탄생을 외쳤던 장면은, 1999 년 Ernest 의 3 명의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TV 로 재현되기도 했다.

특히 Grace 와 Ernest 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하다. Ernest 의 배움에 대해 어머니가 많은 기여를 했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점차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Ernest 가 1 차 세계 대전에서 돌아온 후,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 이러한 갈등은 증폭되었다. 그가 21 세가 되어서도 미시간에 있는 가족별장에서 동네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과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내 21 세 생일이 지난 며칠 후, Grace 는 Ernest 에게 준 긴 편지 글 속에, 이젠 집을 떠나라는 말을 썼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은행과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잠을 방해 받았고, 달래주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놀아주는 것을 통해 마치 은행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이, 아이는 어머니의 ‘육체적 노력’을 빼내는 것과 같다. 아이가 아플 때는,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하고 지켜보며 때로는 교육한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이가 다정한 말과 좋은 행동 등의 작은 선물로 보답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Grace 는 Ernest 가 게으르게 빈둥거리며, 헤락을 찾고 신에 대한 예의도 무시한 채, 어떠한 보답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단점을 여러 번 이야기 했음에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녀는 결론에 “너는 은행 잔고 이상으로 돈을 써서 파산 밖에 남은 것이 없다.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썼다.

초기의 그의 작품에 대한 부모의 반응 때문에 그들 사이에 마찰이 다시 있었다. 1924 년의 작품 ‘우리의 시간들(In Our Time)’에서의 주제와 언어들이 너무 모욕적이라면서 Dr. Hemingway 가 출판사에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태양은 다시 뜨고 (The Sun Also Rises)’의 등장인물과 언어에 대한 그들의 반응 또한 누구나 상상할 수 있다.

1928년 Dr. Hemingway의 자살 후, 어머니와의 틈은 더욱 벌어진다. 가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머니의 거만한 인격이 아버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죽음으로 몰았다고, Ernest는 어머니를 비난했다. 반면, 다른 가족들은 Dr. Ed가 당뇨병을 가졌다고 자가 진단한 데 이어, 플로리다 부동산의 투자 실패에 따라 가족전체의 재산이 상당부분 손실을 입었고, 또한 그가 항상 총을 가까이에 두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계속되는 모자의 틈은 결국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았다. Ernest는 1928년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Oak Park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어쩌다가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Grace에게 돈을 부쳐 말년까지 그녀의 부양을 돋기는 했지만,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때로 Ernest는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Ernest를 그녀의 의지대로 키우고자 했던 무모한 노력에 대해 화가 났었다고 회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녀의 영향은 한마디로 긍정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예술을 소개하려 했던 그녀의 초기 노력들은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버지의 방(Dr. Hemingway's Room)

빅토리아풍에 따라 Ernest Hall과 그의 부인 Caroline이 침실을 따로 쓴 것처럼, Dr. Ed와 Grace도 각방을 썼다. 이것은 그들이 자주 밤에 깨야 하기 때문에 편리했다. Grace가 아이들을 돌보는 한편, Dr. Ed는 자주 환자들을 만나야 했다. Ernest가 나중에 믿었던 것처럼 결혼생활 불화의 증거는 없었다.

Dr. Ed는 인디언의 화살촉과 수공예품에 관심이 많았으며, 자연에서 표본을 수집해서 그것을 병에 넣어 다락에 보관했다. 그는 또한 핀셋 종류의 물건을 발명했으나,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를 거부하기도 했다. Grace가 가끔씩 Dr. Ed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것은 Dr. Ed가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거나, 진료비 청구를 두 번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이면서 아버지인 그의 모습은 종종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로 묘사되기도 했다.

Grace가 아이들에게 예술, 문학, 음악 등을 가르치는 반면, Dr. Ed는 과학, 의학, 자연, 그리고 캠핑, 사냥, 낚시, 운동에 관해서 가르쳤다. 부모는 그들의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학습경험을 제공했던 셈이다. Ernest 를 특별 나게 만든 것은 폭 넓은 배움의 욕구였다. 사실상, 어린아이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관심사였다. 권투를 시만큼이나 좋아했고, 파리의 카페나 카리브해 섬, 아프리카나 작은 배위, 그가 어디에 있던지 다른 문화와 언어의 향기를 느끼며 자랐다. Ernest 에게 지식과 사랑에 관해 이끌어준 사람은 아버지였으며, Ernest 또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의 죽음을 깊게 애도하였다.

할아버지의 방(Abba's Room)

탁자 위에 있는 Abba 와 Grace 의 의례적인 초상화에 주목하라. 그는 영국신사처럼 딱딱하게 풀을 먹인 칼라와 소매 끝 단과, 나비넥타이에 코트를 입고 있다. 그 당시 그는 퇴직하여, 과거 영국 세필드(Sheffield)에서의 그의 아버지에 필적할 만큼 성공한, 칼 제조사업의 공동운영자였다. 그는 또한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였다.

멀리 벽에 Abba 가 그의 3 명의 손자와 함께 있는 큰 사진을 보라. 배경은 미시간의 숲 속이지만 Abba 는 여전히 똑같이 딱딱한 정장차림이다. 왼쪽에 있는 Ernest 는 공기 소총을 들고 있다. 그가 2 살 반일 때 이미 이 총을 쏠 수 있게 허락 받았다. Ernest 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애정표시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

Mr. Hall 은 신장의 만성질환으로 수 개월 동안 고생한 후에 1905 년에 죽었다. 이것은 Ernest 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었다. 아래층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릴 때 Ernest 는 6 살이었고, 그 나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죽음은 Hemingway 후기 작품의 잣은 주제가 되었다. 그는 “나는 내 일생 동안 거의 죽음과 함께 살았고, 죽음을 다루는 것이 나의 일상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의 6 살까지의 경험이 그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동심리학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Ernest 에게는 초기 6 년간은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는 사랑과 음악 그리고 신뢰로 가득한 풍족한 가정에서 살았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멋진 곳에서 성장했다.

번 역 : 권 미 라

Translated by Mira K. Park